

영화

여름 극장가 블록버스터 전쟁

멧돼지 공습, 로봇 기세 꺾을까



2년만에 돌아온 '트랜스포머' 열풍 한국영화 '차우' '해운대' '국가대표' 반격 '해리포터' 여섯번째 시리즈도 15일 개봉



'여름 블록버스터 전쟁이 시작됐다.' 영화가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7·8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블록버스터들이 관객몰이에 나선다. '트랜스포머2'가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 강자 '해리포터' 시리즈가 2년만에 다시 관객을 찾아오며 한국 영화 '해운대'와 '차우', '국가대표'가 맞붙을 놓는다.

◇여 강렬하게 할리우드 공습 '트랜스포머2- 패자의 역습' 열풍은 상상 이상이다. 2007년 개봉한 1편은 780만명의 관객을 동원, 외화 관객수 최 기록을 갖고 있다. 2년만에 다시 여름 극장가에 상륙한 '트랜스포머 2'는 개봉 10일 만에 500만명을 동원하며 승승장구 관객 1천만명에 도전장을 던졌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여섯번째 이야기인 '해리포터와 혼혈왕자'는 오는 15일 개봉한다. 매년 한관씩 개봉하며 방황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던 '해리포터' 시리즈는 지난해 건너뛰고 2년만에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인 '맥스 무비' 등 관련 사이트에 예매 동향을 보면 36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전작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의 성적은 가늠이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봉 첫주에 국내 박스오피스 사상 단일 브랜드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해리포터 시리즈 관객 2천만명 동원이라는 대기록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작인 '불사조 기사단'과 2편으로 구성된 2010년과 2011년 개봉하는 마지막 시리즈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의 감동까지 많은 데이빗 예이츠가 메가폰을 잡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에는 다니엘 래드클리프, 엠마 왓슨 등 전작의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한다.

이번 시리즈는 어둠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져 마글

세계와 호그와트까지 위협해오자 덩달아도 교수가 다가를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해리 포터와 함께 대장정에 나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국영화의 반격

상반기 화제가이었던 '박쥐'와 '마더'는 모두 18세 이상 관람가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객 동원에 한계가 있었다. 본격적인 관객몰이에 나선 세 편의 영화가 일주일 간격으로 개봉한다.

'인질 괴수 어드벤처'라는 타이틀을 단 '차우'는 순제작비 66억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해리포터' 시리즈와 같은날 개봉하는 초강수를 쳤다. 독특한 스타일 영화 '시실리 2km'로 전국 200만명을 동원했던 신정원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차우'는 식인 멧돼지와 5인의 추격대가 벌이는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눈길을 끄는 연기파 배우들의 향연이다. 드라마 '부활', '선덕여왕' 등을 통해 입지를 굳힌 임태웅을 비롯해, '명품 조연' 유재호, 관록의 배우 장항선, '가족의 탄생' '캐서린 세라'의 정유미가 출연한다.

한국 최초의 재난 블록버스터를 표방한 '해운대'는 '쇄적시공'의 유재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부산 해운대에 갑자기 들이닥친 쓰나미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설경구·하지원·박중훈·임정화 등 초조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130억이 투입된 대작으로 거대한 해일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밖에 국가대표 스키 점프 선수들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대표' 역시 감동적인 스토리로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미는 괴물'의 김용욱 감독 작품으로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하정우를 비롯해 김지석·김동우 등 젊은 배우들이 함께 출연한다.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오감도



'에로스' 공통 주제

5명의 감독이 제작

5작품 묶은 유니버스

다섯명의 감독이 '에로스'라는 공통의 주제로 만든 작품을 모은 유니버스 영화다.

'주홍글씨'의 변혁 감독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 젊은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his concern'을,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를 통해 한국 멜로 영화의 새 장을 연 허진호 감독은 배우자를 잃은 남편의 에로스를 그린 '나, 여기 있어'를 선보인다.

또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의 민규동 감독은 남편의 옛 애인과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시작과 끝'으로, 오기환 감독은 이제 막 성에 눈을 뜨는 10대 청소년들의 어설픈 에로스를 보여주는 '순간을 믿어요'로 관객들을 만난다.

마지막 한편은 유영식 감독의 '33번째 남자'로 뇌세적인 조건 여배우와 순진한 여배우, 감독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작품이다.

이 영화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려한 캐스팅이다.

배종옥·김수호·황정민·임정화·장혁·김효진·김민선 등 한편의 영화를 겨냥해 끌고갈 수 있는 주연급 배우부터 신세경·이시영·김동우 등 신인배우들이 함께 출연한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국제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Kj (주) 국민법률경매' (Kj National Law Auction) listing various legal services and contact details.